

그린벨트 전통사찰 건축규제 완화

국민고충처리위
건교부에 개선권고

그동안 까다로운 법 적용을 받은 그린벨트 내 전통사찰의 원형복원을 위한 건축행위 및 사찰진입로 개설, 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9일 조계종 총무원에 보낸 공문에서 "전통사찰보존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원형복원을 위한 건축행위 및 기타 행위제한 사항들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해당부처인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

이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안은, 그린벨트 내 전통사찰이 행위제한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조계종의 민원을 수용한 것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결의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종교시설 신축 및 개발제한구역내 내 전통사찰의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전통사찰이 진입로를 별도로 마련하지 못해 신도들의 신행활동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내방객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어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의 증축면적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76년) '연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해 30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건축법 시행령 조항을 '250㎡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해 50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한다'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에 대한 증축 범위가 다른 시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정 상 담당관은 "권고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 mahnu@buddhapia.com

개발제한 부담금 감면대상 사찰 포함 종교시설 증개축 면적 대폭상향 필요

리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및 토지형질 변경이 가능한 대상을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익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법에 사찰도 포함시켜야 하며, 개발제한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될 수 있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의 증축면적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76년) '연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해 30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건축법 시행령 조항을 '250㎡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해 50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한다'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에 대한 증축 범위가 다른 시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정 상 담당관은 "권고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 mahnu@buddhapia.com

1면에서 계속

도 문화관광부 부-문석 차관은 축사에서 "이번 전지가 불교미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함과 동시에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예술의 세계로 승화시켜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 행사에는 윤신태(조계종 총무원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법장(수덕사 주지), 광우(전국비구대회 회장), 김해근(법주총 총무원장), 동광(청담문화재단 이사장), 원택(조계종 총무원장), 고경(송광사사보박물관장)스님, 서든(대만 불교진흥원 이사장), 이남기(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송석구(중국대 총장), 전성우(간송미술관장), 김중규(한국박물관협회장), 유준상(서울시립미술관장), 이태길(광주시립미술관장), 김복희(김복진 선생 조각팀), 장인악(중국대총고대학원 총동맹회장), 이수덕(불교TV 사장), 김규형(불교방송 사장), 김광삼(현대불교신문사장) 등 불교계와 미술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시는 28일까지 계속되며, 경주(선재미술관, 11.2~11.9) 속초(속초문화회관, 11.22~12.1) 여수(여수문화회관, 12월초) 순회전시회도 열린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가르침 되새겨 한국불교발전 매진"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대법회가 15일 도선사에서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청담스님 가르침을 되새겨 한국불교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청담문화재단은 15일 도선사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 상수스님을 비롯, 총무원장 정대스님, 종회회장 지하스님과 김수환 추기경, 박문석 문화부 차관, 한희갑 민주당 대표, 이상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담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혜정스님과 현성스님이 <청담 대종사와 현대 한국불교의 전개> 기념 논총과 청담 대종사 법어와 경전

강설을 묶은 6권 전집을 청담스님 영전에 봉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법어를 통해 "청담스님은 1600년 한국불교를 새로 세우고 오늘의 조계종 출범과 기쁨을 만

드신 분이"라며 "부처님 법대로만 살자고 하시던 청담스님의 가르침을 다시한번 되새기며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과 마음을 밝히는 일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후학들은 대종사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법어 경전강설 묶은 전집 6권 · 논총 봉정

법회에 이어 도선사는 청담기념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기념관에는 청담스님이 생전에 사용하던 수합과 손가방, 베푸는 떡, 붓, 육한장 등 스님의 유품과 회화, 편지 등이 전시됐다.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도선사 대법회 3천 여명 참석

그 사상과 행적을 반추하고 정화이념을 되새기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스님께서 남겨주시는 인옥과 참회의 가르침을 더욱 굳건히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종교원회의 장림에 함께했던 김수환 추기경은 축사를 통해 "스님은 항상 자상하고 솔직하셨다"면서 "스님이 펴신 법은 불교정화 뿐 아니라 인간존재의 의미와 삶 그 자체였다"고 회고했다.

정부대표로 참석한 박문석 문화부차관은 "스님께서 퍼셨던 호국참회불교사상은 오늘날 국민의 정부가 통일이념을 펴는데 도움이 됐다"며 "호국사상에 바탕한 스님의 불교이념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w@buddhapia.com

"청담 큰스님은 영원한 구도자"

김수환 추기경 회고

청담스님은 분명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큰스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른 분이 아닙니다. 그 분은 영원한 구도자였습니다.

저는 청담스님을 1968년에서 1971년 열반하시기 전까지, 이른바 종교간의 대화 자리를 통해 여러차례 뵈을 수 있었습니다.

30여년이 흘렀지만 청담스님은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저에게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고 길을 찾는

인간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그분이 구한 진리를 찾는 길은 한국불교의 교단정화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국인, 아니 인간이 마음속 깊이에서 찾고 있는 삶의 의미, 참사망과 참생명, 바로 존재와 생명의 근원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청담스님이 불교정화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는지는 저를 찾아 오셔서 가톨릭에서는 수도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사제양성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물으셨을 뿐 아니라 친히 수도원과 신학교를 찾아가시기 까지 한데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청담스님을 회고하는 김수환 추기경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불교계가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를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전국강원연합회, 서울광역시도회, 대불청, 교수불자연합회 등 41개 불교 단체들은 17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1백만인 서명운동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 추진본부는 "12월까지 불자와 일반인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앞으로 전국 사찰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북한산 관통도로의 문제점을 알리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시민홍보에 적극 나선다. 또한 전국강원연합회 소속 스님들의 거리서명 운동, 사이버 서명

운동도 전개한다.

한편 공구, 인원, 경비 문제 등으로 무산됐던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조사위원회 첫 모임이 24일 오후 5시 서울 올림픽야외관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12월 말로 예정된 노선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계종 공동대책위, 불교환경연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은 14일 건교부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노선조사위원회 조사구간은 4공구를 대상으로 하고, 위원회 필요에 따라 연계구간의 답사 등을 실시 추진 △위원회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의된 사항에 대한 조사비 등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담하는 방안 검토 △사업시행자측 노선조사위 1인 배제 등에 대해 합의했다.

강유신 기자 shammok@buddhapia.com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불교 왜곡 방송

1. 불교교리나 스님을 왜곡 비하 하는 방송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① 불교에 대한 몰이해 ② 종교미주의 편성 ③ 심의 절차의 부재 ④ 기타

2. 불교 왜곡 비하 방송을 줄이려면?

① 모니터 활동 ② 방송 관계자의 불교이해 ③ 사법 대응 ④ 방송법 관련 조항 강화

설문 참여: 10월 24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첨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를 현대불교 393호 A판 8면에 실습니다.

깨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의 소스를 전하기 위해 '깨보'를 창간하고 독자 여러분의 깨보를 기다립니다. 02-772-4162, buddhanews.com

아바타코스

꿈을 ★ 이루십시오!

정신력을 키우고 가늠 나간다면 귀의 꿈도 현실이 됩니다.

진정한 부유함 / 건강 / 성취 그것은 이미 꿈이 아닙니다.

쉽지만 강력한 프로그램 아바타 체험해보십시오.

귀여의 소중한 꿈을 이루십시오!

메신야빅터 센터 011) 606-1976 www.haesnavatar.com
세이아빅터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불 조국통일염원 아미타불 패불점안 법회 행

우주법계와 삼라만상은 일체진여를 깨달코져 대승종에 인연하여
나라의 염원인 남북화해와 조국통일을 위해 아미타불 패불을 봉안하노라.
일천만 불자들이여~
무릇 때를 아는 자는 보살의 동체대비를 이루리라 하였노니
패불점안 복전에 무루동참하시어 그 인연공덕으로 큰 복을 지으시고 세세생생토록 평안하시라.

■ 일 시 : 2002. 10. 25. 금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 강북구민회관 대공연장

■ 주 최 : 사단법인 대한불교 대승종 ■ 주 관 :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

■ 후 원 : 대승종 전국 지방종무원, 대승종 포교사단 방범기동순찰대, 대승종 전국 신도회 ■ 협 찬 : 현대불교신문사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 1동 186-19 TEL : 031)448-8811